

# “지역밀착 상생경영으로 초우량 100년 기업 성장”

## 광주은행, 창립 56주년 기념식

올 1조3천억 규모 상생금융 지원 지역 대표은행 역할·책임 등 강조 고병일 은행장 “지역과 동반성장”

창립 56주년을 맞은 광주은행이 지역 밀착 상생경영 실천과 핀테크·플랫폼 제휴와 협업을 통한 미래먹거리 발굴 등의 전략을 내놓았다.

광주은행은 20일 본점에서 고병일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감사고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창립 기념식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광주은행의 56년을 위해 성원을 보내준 감사고객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우수직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고객과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며, 광주은행의 지난 56년 역사를 다시 돌아보고 지역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임직원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고병일 은행장은 기념사에서 “최근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과 격려를 보내준 고객과 지역민들 덕분에 많은 시련들을 슬기롭게 극복하



광주은행은 20일 본점에서 고병일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감사고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광주은행 제공

고, 이제는 총자산 31조원에 이르는 명실 상부한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금융파트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먼저 찾아가는 금융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이날 미래 영속성을 높이고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책임 있는 성장을 위한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기업금융 조직과 지역맞춤형 금융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로 지역밀착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핀테크·플랫폼 제휴와 협업을 통한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토스뱅크와의 전략적 협업을 바탕으로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혁신금융서비스인 ‘함께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금융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부통제 생활화, 임직원의 윤리의

식 확립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본과 원칙 중심의 고객가치를 실천하고, 광주은행만의 차별화된 실행력을 기반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에 유연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1968년 11월 20일 ‘지역 경제 발전과 소상공인 및 중저민을 위한 금융지원’이라는 가치와 함께 자본금 1억5000만원, 총 직원 50여명으로 첫 발을 내딛은 광주은행은 현재 총자산 31조원, 영업점

123개, 총 직원수 1700여명 등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항토은행으로 성장했다.

광주은행은 올해 1조3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지원과 293억원의 민생금융지원을 통해 지역 자금난 해소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지역밀착 상생경영을 실천해 오고 있다.

또한, 전 임직원이 참여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밀착 상생경영을 기반으로 시중은행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광주시 1급고를 수성했다.

지난 8월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매년 공개하는 ‘지역재투자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외에도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Forbes)’와 ‘CNBC’에서 각각 ‘2024년 세계 최고의 은행’과 ‘2024 아태지역 최고의 은행’을 선정하는 가운데, 광주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와 카카오펍크에 이어 ‘2024 World’s Best Banks’ 국내 3위를 차지했으며,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에서 2018년부터 7년 연속 지방은행 부문 1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고 은행장은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은행’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지역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초우량 100년 은행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 광주TP·창원산업진흥원, 첨단방위산업 육성 맞손

호남과 영남이 첨단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19일 창원산업진흥원과 첨단방위산업 육성 및 초광역권 연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협력해 방위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의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평가다.

창원산업진흥원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양 지역 첨단방위산업 분야 육성에 대한 협력사업을 도출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자문, 지역 연계 첨단 방위산업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과 중소기업 혁신을 촉진할 예정이다.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방위산업 혁신을 이끌어내고 초광역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광주의 새로운 산업 진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 현대차·기아, 美제이디파워 선정 ‘최고 잔존가치상’

### 코나 일렉트릭·텔루라이드

현대차·기아는 미국 시장조사업체 제이디파워가 발표한 ‘2025 잔존가치상’에서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과 기아 텔루라이드가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미국 소비자들이 차량 구입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 하나인 제이디파워 잔존가치는 △중고차 성능 △브랜드 전망 △제품 경쟁력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차 가격 대비 3년 후 예상되는 중고차 가격으로 산정한다.

이번 2025 잔존가치상은 다양한 부문에서 총 311개 모델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올해 처음 잔존가치상에 추가된 ‘전동화 SUV’ 부문에서는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이 최고 잔존가치 모델로 선정됐다. 기아 텔루라이드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까지 4년 연속으로 ‘3열 중형 SUV’ 부문에서 최고 잔존가치 모델로 선정되며 뛰어난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우수한 품질과 상품성을 인정받았다”며 “고객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상품성을 갖춘 모델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이디파워는 2020년 미국 최고 권위의 중고차 잔존가치 평가사인 ALG사를 인수, ALG본부 주관으로 매년 다음 해 가장 높은 잔존가치가 예상되는 모델을 차급별로 선정해 잔존가치상을 수여하고 있다.

박소영 기자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 광주상의, 제12회 광주상공대상 시상식 성료

### 경영우수 분야 등 5명 수상

광주상공회의소는 20일 오후 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상공인과 경제유관기관 및 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88주년 기념 제12회 광주상공대상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 발전과 상공업 진흥에 헌신해 온 유공자를 발굴 표창해 그 노고를 위로하고 회원간 화합의 장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펼쳐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뤄낸 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광주상의는 기업인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상공인들이 더욱더 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광주상공회의소는 20일 오후 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상공인과 경제유관기관 및 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88주년 기념 제12회 광주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광주상의 제공

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경영우수부문 이영웅(주리젠시빌주택 회장 △고용우수부문 문재웅(기아) 오로랜드광주 공장장 △기술혁신 부문 유구현(주한국스리축 대표이사 △지

역공헌부문 박준희 씨제이제일제당(주) 호남지사장 △노사상생부문 양우천 오비맥(주) 광주공장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장기근속 모범근로자에는 진수연(주) 다목하우스 부사장 등 12명이 광주상의 회장 표창을 받았다.

최권범 기자

## 중소조선연구원, ‘조선산업 스마트화’ 나선다

### 부산대와 장비활용·기술개발 협약

중소조선연구원과 부산대학교는 지난 19일 부산대 본관에서 조선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장비공동활용 및 기술개발협력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첨단 기술과 높은 정밀도를 갖춘 최신행 CT 장비를 공동활용해 조선산업의 후판 구조물 및 의장품 파손 원인 분석, 3D 프린팅 및 용

접, 주조로 제작된 조선기자재 내부 구조 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CT 장비는 기존의 2차원 검사 방식인 자분탐상검사(MT), 초음파검사(UT), 방사선투과검사(RT)보다 정밀도가 높아 조선산업의 주요 부품과 제품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부산대는 이번 협약에 따라 장비 운용을 위한 장소와 전문 인력을 제공하며, 중소조선연구원과 공동 연구시설인 ‘Joint

Lab’을 구축하여 연구자들이 조선, 기계,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용석 중소조선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은 조선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조선산업 전반의 생산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부산대와 중소조선연구원의 협력은 우리나라 조선업계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국방, 합정개발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